



음악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음악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음악축제는 여름날 최고의 즐거움이다.

4년 전 첫 선을 보인 구례 자연드림 락 페스티벌과 광주시민들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사직공원을 공연장으로 활용한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 올해 라인업을 발표했으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도 행사를 준비중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주사운드페스티벌(9월 2일~3일)은 19일 1차 라인업을 공개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음악 피크닉’을 콘셉트로 삼은 ‘2017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직곡제포크음악제’에서 출발한 행사로 이름을 바꾼 후 장르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대중음악 트렌드를 선보이는 축제다.

지난해 광주 지역 축제 중에서는 최초로 유료 모델을 도입, 사전티켓 매진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9월 2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모던록밴드 ‘넬(NELL)’과 북고풍 3인조 걸그룹인 ‘바버렛츠’, SBS K팝스타5에서 자작곡만으로 준우승을 거머쥔 신예 ‘안예은’이 무대에 오른다. 9월 3일에는 대한민국

- 9월 2~3일 ‘2017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넬·바버렛츠·스위트피·안예은·옥상달빛 등 무대
- 8월 19일 ‘구례 자연드림 락 페스티벌’
YB·부활·김경호·크라잉 넛·스컬&하하 등 출연
- 8월 25~26일 문화전당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인디밴드신을 주도한 ‘멜리사페이스’ 김민규의 솔로프로젝트 ‘스위트피’와 여성 포크듀오 ‘옥상달빛’이 무대를 꾸민다. 2차 라인업은 오는 7월 10일 발표한다.

19일부터 시작된 예매는 7월초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티켓가격 1일권 3만 3000원, 2일권 5만 5000원. 인터파크, 티켓몬스터, 네이버, 아프로티켓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654-3622.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례자연드림 락페스티벌’은 오는 8월 19일 오후 4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다. 아이큐생협이 주최하는 행사는 가족

단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김창완 밴드, 장미여관 등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는 YB(윤도현 밴드), 부활, 김경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뮤지션들이 출연전에 이름을 올렸다. 또 펑크 음악의 대명사 크라잉 넛, 스컬&하하, 로맨틱 펀치, 소울엔진, 마르멜르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구례자연드림 락 페스티벌은 친환경 먹거리 축제로 인기가 많다. 무항생제 치킨, 우리밀 핫도그를 비롯해 드림파크 내 수제 맥주 공장에서 만든 다양한 수제 맥주도 즐길 수 있다.

그밖에 행사가 열리는 곳이 지역임을 감안, 더 케이 지리산 가족호텔, 지리산 온천랜드 등 숙박시설과 연계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티켓 가격 3만원. 7월 10일까지 자연드림파크 홈페이지와 예스24, 인터파크, 네이버에서 구입하면 2만7000원에 예매 가능하며 구례지역민은 1만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1-783-2200.

그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오는 8월 25~26일 전당 주변에서 열린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숙희 영암 삼호고 교사 ‘전국 김소월백일장 시낭송대회’ 대상

김숙희(사진) 영암 삼호고 교사가 최근 국립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2017 전국 김소월 백일장 시낭송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새한국문화회와 김소월낭송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김 교사는 자작시

‘꽃향으로 바람에 실리어’를 낭송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을 포함, 김 교사는 지난해 김소월 전국백일장 대회 준상장과 서울포엠페스티벌 전국시낭송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전국대회 6관왕을 차지, 시낭송계 스타로 발돋움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김소월 전국백일장 산문 부문 준상원상을 받으며 수필가로도 데뷔해 다양한 문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 교사는 서울 김소월낭송협회 신임회장에 선임돼 겹경사를 맞았다. 취임식은 8월에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7 굿음악 축제’ 팔도 굿 유람

22~24일 국립남도국악원

진도는 땅자의 극락왕생을 빌고 천도하는 ‘진도 씻김굿’(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진도에 자리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개원 초부터 남도 지역의 숨은 굿과 예인을 발굴·소개하면서 사라져가는 전통 굿음악을 꽃피이 지켜왔다. 남도를 중심으로 서남부권 굿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10년 간 ‘굿음악 축제’를 열어온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오는 22일~24일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리는 ‘2017 굿음악 축제’는 기존 굿 축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변신을 꾀한다. 각 지역 마다 향토색 짙은 다양한 굿음악을 간직하고 있는 점에 착안, 남도 굿음악을 넘어 전국 팔도의 굿을 소개하는 한바탕 축제로 확장했다. 타 지역 굿음악을 통해 남도 굿의 특징을 더 잘 알게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도 담았다.

행사는 팔도 굿음악 유람, 세미나,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타악 그룹 ‘일쑤’는 태안에서 전승되는 ‘앉은 굿’ ‘태안설위설경’을 선보이며 남도 국악원은 기정의 재수와 복을 빌어주는 ‘서울 천산굿’을 공연한다. 또 곡성 죽동농

악보존회는 ‘동해안 오구굿’을 선보인다. 진약당에서는 매년 2월 잔잔한 바다와 풍어를 비는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집안과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황해도 철물이굿’, 남도를 대표하는 굿음악 ‘해남 씻김굿’이 공연된다.

23일과 24일에는 ‘팔도 굿 예인의 삶과 음악’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이용식 전남대 교수가 ‘전남 무속 예인의 삶과 음악’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굿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 굿을 할 때 사용하는 각종 도구를 전시하는 ‘신을 담은 그릇 무구(巫具) 전시회’도 열리며 ‘굿, 그날의 기록’에서는 신안 비금도에서 촬영한 ‘유점자 날밤이 씻김굿’(2006), 진도와 목포에서 촬영한 ‘채정례 성주굿’(2011)과 ‘유점자 혼전집 씻김굿’(2007) 등 남도국악원이 보유한 미공개 영상자료도 선보인다.

그밖에 지전 만들기, 지전춤 배우기, 민요와 강강술래 배우기, 종이꽃·미니솟대 만들기 등 각종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진도읍사무소에서 출발하는 ‘굿음악 공연 차량’도 무료로 운행한다. 문의 061-540-40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단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김창완 밴드, 장미여관 등이 다녀간 데 이어 올해는 YB(윤도현 밴드), 부활, 김경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뮤지션들이 출연전에 이름을 올렸다. 또 펑크 음악의 대명사 크라잉 넛, 스컬&하하, 로맨틱 펀치, 소울엔진, 마르멜르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구례자연드림 락 페스티벌은 친환경 먹거리 축제로 인기가 많다. 무항생제 치킨, 우리밀 핫도그를 비롯해 드림파크 내 수제 맥주 공장에서 만든 다양한 수제 맥주도 즐길 수 있다.

그밖에 행사가 열리는 곳이 지역임을 감안, 더 케이 지리산 가족호텔, 지리산 온천랜드 등 숙박시설과 연계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티켓 가격 3만원. 7월 10일까지 자연드림파크 홈페이지와 예스24, 인터파크, 네이버에서 구입하면 2만7000원에 예매 가능하며 구례지역민은 1만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1-783-2200.

그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는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오는 8월 25~26일 전당 주변에서 열린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해도 철물이굿 장군거리

‘2017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작가 초청 콘서트

23일 전남대, 한강 소설 ‘흰’

전남대가 23일(오후 7시) 교내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2017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작가 초청 한책 특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특 콘서트는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흰’의 저자 한강(사진) 작가를 초청한 가운데 작가 낭독회, 작가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진행은 문학평론가이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에 재직 중인 차미령 교수가 맡는다.

전남대는 2013년부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으로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도민의 직접 투표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만4847명이 투표에 참여,



한강 작가의 ‘흰’을 ‘2017 한책’으로 선정 한 바 있다.

정병석 총장은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은 어렵혀지지 않는 어떤 한 권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시켜준다”면서 “이번 한책 특 콘서트를 통해 올해 시도민이 함께 읽고 이야기할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3~4월 두 달 동안 144개(회원수 1214명) 독서클럽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장흥으로 떠나는 한책 문학기행을 실시하는 등 한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 JOY4U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1년 365일 모바일과 PC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JOY4U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CBS레인보우 검색
애플 : iOS 앱스토어에서 CBS레인보우 검색